야구 최강에서 공부 최강으로 '공부 홈런' 날린다



북일고

북일고등학교가 재단의 전폭지원에 힘입어 '제2의 개교'를 준비하고 있다. 북일고는 한화그룹의 학교법인 북일학원이 운영하는 학교다. 한화그룹 창업자인 고 김종희 회장이 초대 이사장으로 쾌척한 장학금을 기반해 1976년 출발했다. 현재 이사장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다. 김 회장의 행보는 올해 프로야구 판도를 바꿔놓았다. 2009~10년 연속 최하위에 머무르며 패배감에 사로잡혔던 한화이글스가 '올해 일 한 번 내보자'는 분위기다. 거액을 들여 박찬호와 김태균을 영입했기 때문. 화끈한 성격의 김 회장 행보답다. 북일고에 쏟는 지원도 마찬가지다. 지난해까지 서울대 350명, 고려대 615명, 연세대 346명, KAIST · 포스텍 · 사관학교 등 특수목적대에 414명을 진학시키는 등 충남지역에서 공주한일고 공주사대부고 등과 함께 지역명문으로 손꼽혀온 북일고는 작년 입시실적이 흉작이었다. 올해는 다르다. 자율형사립고 완성년도를 맞아 자율고 1기의 실적이 기대되는 상황. 여기에 김 회장이 드라이브를 걸었다. 국제교육 전문가를 신임교장으로 전격 교체하면서 올해 일 한 번 제대로 낼 태세다.

충남 천안시 동남구 단대로 69
*학교유형: 자율형사립고(2010년 전환) *개교연도: 1976년 *모집단위: 전국 *모집정원: 일반계 남학생 11학급 385명(야구부 12명 포함, 학급당 35명) 국제과 남녀학생 1학급 30명 *기숙사: 4인1실 114실, 2인1실 200실(856명 수용) *학비: 입학금 4만4100원(1회), 수업료 71만3700원(분기), 학교운영지원비 18만9000원(분기) *기숙사비: 4인1실 8만원(월), 2인1실 17만원(월) *식비: 2900원(1식) *학교 홈페이지 및 전화번호 www.bugil.hs.kr 교무실(041)520-8620~2 국제과(041)520-8822, 8833

한화그룹 전폭지원 업고 전문가 교장 영입 등 '제2의 개교'
진로맞춤형 교육 등 안착…자율고 완성년 맞아 실적 기대

교원 구성도 재편

북일고는 작년 가을부터 큰 변화를 겪었다. 신임교장이 부임하고 교원구성이 재편되고 교육과정이 조정된 것. 인적 구성의 변화는 학교 자체의 변화를 의미한다. 다행히 학교는 쾌속 순항할 예정이다. 자율고 완성년을 맞아 올 대입실적이 기대되는 마당에 교육커리큘럼을 더욱 정교화하고 교직원의 사기를 북돋는 계기로 작용했기 때문.

신임 강익수 교장은 글로벌 에듀케이션 전공자답게 일반계와 국제과를 아우르는 다양한 커리큘럼을 구상해 실현해냈고, 교원구성을 재편해 학교와 구성원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큰 그림을 마련했다.

올해는 입학 전부터 졸업까지의 통합 학생관리프로그램인 'Total Educare System'을 정착시켰다. 신입생들은 북일고에 입학하기 전 3주 간에 걸쳐 진행되는 '신입생 적응캠프'를 통해 적응력을 높일 수 있다. 학생진로에 맞춘 고교 3년 간의 '진로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도 안착했다. R&E 심화영어 고급수학 고급과학 과학실험 등 대학 수준의 전공별 심화학습과 각종 과제수업을 통해 대입 구술면접 대비를 기한다. 입시지도위원회를 구성하고 유명 입시실무자를 초빙해 특강을 열기도 하는 등 입학부터 졸업까지 진로에 연계된 통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영어 강화하고 '1인1예1체' 교육

특히 10개 모듈의 과제연구 논문작성이 눈에 띈다. '북일MBA(경제 사회 수학)' '북일Humanitas(철학 역사 예술)' '인간과 문화(사회 역사 철학)' '생명과학' '제약' '신소재' '신재생에너지' '반도체' '바이오' '정보 보안' 등 10개 분야에 37명의 전문가를 학생들과 연결시켜 관련 연구와 논문작성을 진행하게 한다. 전문가들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관련 대학교수 외에 한화계열 연구소 연구원들로 구성되어 있어 눈길을 끈다.

학습에 필요한 모든 자원은 학교가 연계해준다. 대학연계 R&E의 경우도 단국대 첨단과학 연구소와 협력해 첨단과학대학 소속 교수가 직접 지도한다. 수학 물리 화학 생물 미생물학 나노바이오의학 등 분야도 다양하다. 국제협력 R&E는 한국 중국 일본 3개국 학생이 한 팀이 되어 연구를 진행한다. 서울대 고려대 한양대 등의 국제학부 대학생들과도 연결해 멘토링을 진행한다.

일반계 학생들에게도 영어교육을 강화했다. 현재 4명의 원어민교사는 올해 6명으로 증원될 예정이다. 올해부턴 1개 학급을 2개 조로 재편성해 원어민교사와 주당 2시간 3년 간 회화학습을 함으로써 전교생이 영어로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게 하려 한다.

인성교육에도 공을 들였다. 주당 2~4시간씩 '1인1예1체' 수업을 진행한다. 북일고 학생들은 최소 한 개의 악기와 운동에 대한 기량을 연마하는 셈. 이미 지역축제로 자리잡은 북일축제와 임해수련 해외문화탐방 체험학습 리더십캠프 계룡산등반 등의 전통적인 활동뿐 아니라 학생들의 자발적인 조직체인 41개의 동아리활동, 천안시립노인병원 등 21개 지역기관과 협약을 통해 2년 간 지속적으로 전학생이 참여하는 봉사활동 등 다채로운 활동프로그램도 학교가 연계해 진행하고 있다.

기숙형학교를 지향하는 북일고는 전국최고 수준과 규모의 기숙사를 운영한다. 아파트식 4층 건물 2개동 114실(4인1실)의 기존 기숙사에 6층 건물 2개동 200실(2인1실) 수용의 기숙사를 작년 신축했다. 전담사감교사 6인이 3개조로 방과후 심화학습 및 생활지도부터 이튿날 아침 등교시까지 지도하고 있다.

북일고는 일반계 학교설명회를 5월 26일(토) 7월 21일(토) 8월 18일(토) 9월 15일(토) 각 11시에 개최할 예정이다.

/김경숙 기자 inca@veritas-a.com

국제과 GLP (Global Leader Program)

IVY출신 15명의 외국인교사 상주…해외교류프로그램 활발

GLP는 북일고가 2010학년에 신설한 국제과다. '스쿨 인 스쿨' 방식으로 해외대학진학을 목표하는 학생들을 별도 선발해 교육하고 있으며, GLP 1기인 3학년 학생들의 해외대학 진학실적이 2013년에 나올 예정이라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GLP는 교사진과 커리큘럼에 남다른 자부심을 갖는다. 방과후학습체제로 유학반을 운영하는 외고들과는 달리 15명의 외국인교사들과 별도 카운슬러가 학교에서 학생들과 함께 24시간 생활하고 있다.

외국인교사들은 모두 석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로 대부분이 미국 상위 20위 내에 드는 대학을 졸업한 전문가들이다. 특히 카운슬러가 10학년부터 고교 3년 간 진행하는 진학지도는 11학년부터 진행하는 다른 학교들과 차별화된 시스템이라 할만하다.

국어 국사 예체능과목을 제외한 모든 과목을 영어로 수업한다. 현재 국제과에서는 미국 칼리지보드로부터 공식승인을 받은 20개의 AP교과를 제공하고 있으며, 다양한 수준과 내용의 선택교과들도 개설했다. 북일아카데미 학생들의 AP 평균점은 4.4/5.0이며, SAT 평균점은 Critical Reading 750, Math 780, Writing 730 일 정도다.

다양한 해외교류프로그램도 눈에 띈다. 현재 미국 2개 학교(Westlake High School, TMC), 싱가포르(Hwa Chong Institution), 인도네시아(Binus International School), 호주(Brisbane Grammar School), 중국(Suzhou Foreign Language School)의 교육기관과 매년 정기적인 교류협력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GLP는 전국 중학생을 대상으로 제 3회 CTA&English Essay Challenge 대회를 6월3일에 열 예정이다. 수학 과학 인문지리 언어 등 4개 영역으로 창의사고력을 평가하는 CTA와 상황설정 및 주제설정형의 문항으로 영어능력과 사고력 수준을 평가하는 Essay로 구성했다. CTA와 Essay 모두 500~1000단어 정도의 영어글쓰기로 답하는 방식이며, 작년 기출문항을 국제과 홈페이지에 탑재한 상태다. 이영준 북일고 국제과 3학년 담임은 "실제로 국제과에서 진행되는 수업내용이라 지원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3 북일고 국제과 설명회 일정

지역	장소	날짜	시간
서울	Coex	6.7(목)	10:00~12:00
일산	KT고양지사	6.8(금)	10:00~12:00
부산	BEXCO	6.11(월)	10:00~12:00
분당	성남시중앙도서관(시청각실)	6.12(화)	10:00~12:00
대전	사학연금회관(둔산)	6.13(수)	10:00~12:00
목동	사학연금회관(여의도)	6.14(목)	10:00~12:00
천안	북일고 시청각실	6.16(토)	14:00



고교야구명문으로 이름을날리던 북일고가 전국단위 자율고 전환 이후 전국으로, 더 나아가 해외로까지 '공부홈런'을날릴 기세다. 재단 한화그룹의 전폭적 지원 아래 인적구성을 재편, 더욱 튼실한 교육과정을 안착시켰기 때문이다. /사진=유승현 기자 blog.veritas-a.com/isphoto





InterView 강익수 북일고 교장

"시스템 완벽 구축, 10년 내 최정점 도달할 것"

교장이 직접 '수업컨설팅', 자발적으로 '교사동아리' 활성화



강익수 북일고 교장은 북일고가 '제2의 개교'를 위해 작년 9월 영입한 글로벌 에듀케이션 전문가다. 교육학 박사 출신으로 작년까지 인천하늘고 교감을 지내다 북일고에 외부자문을 하던 중 북일고 대전환의 기틀을 마련할 인물로 발탁됐다. 현재 활발히 가동되고 있는 북일고의 여러 프로그램들은 강 교장이 작년 2학기에 모두 설계한 것이다.

- 재단 지원은 어느 정도인가?

"작년 35주년 기점으로 재단이 전폭 지원한다는 입장이다. 매년 46억원을 학교에 투자한다. 재단전입금이 학교 1년 예산의 40%에 달한다. 학생들에게 들어가는 교육은 연간 1300만원 정도로 환산되는데, 학생들은 1년간 기숙사비 방과후수업비 교복까지 다 포함해 944만원만 부담하고 있다."

- 인적구성 변화가 크다

"작년 9월 부임 후 20명의 교사가 새로 들어왔고, 8명의 교사가 퇴직했다. 젊은 교사들이 와서 역동적이다. 교사 평균연령이 39세다. 나는 교사 대상으로 수업컨설팅을 하고 있다. 애초부터 교사들이 헌신적이었다. 워낙 애착도 강하고 프라이드도 강한 분들이라 동의만 구한다면 문제가 없을 부분이다. 교사들이 '변화의 중심'이라는 데 공감하고 있어 감사하다."

- 일반계와 국제과 교사들간 위화감은 없을까?

"없다. 어제는 일반계와 국제과 수학선생들끼리 식사하고 미팅하는 자리가 있었다. '교사동아리'도 자발적으로 6개가 만들어졌다. 교사끼리 수업참관하고 서로 컨설팅한다. 대입전형 관련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교사 30명 가량이 동아리를 만들어 각계 전문가 초청해 휴일인 토요일에 강연을 듣는다. 수리논술도 교사들끼리 모여서 공부하고 있다. 학원강사 필요 없고 학교에서 해보자는 열의가 대단하다. 교사들의 열의, 이게 경쟁력이다. 물론 학교도 연간운영비를 지원한다."

- 교육과정의 변화는?

"특목고에서나 운영하는 전문교과와 대학과목선이수제인 UP를 개설했다. 자기주도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미래엔 '협동학습'이 중요하다. 가능하게 하려면 팀을 짜주고 '과제연구' 하도록 해야 한다. 모두 아웃소싱한다. 재단이 한화그룹이어서 가능한 부분이다. 한화그룹 계열 석박사 연구원들이 학생들을 가르친다. 내 인적 네트워크도 최대한 활용한다. 대학교수, 성공한 CEO, 한국은행 금통위원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과제연구지도를 한다. 고교 3년 간의 학습경로를 설계해주는 '진로맞춤형 교육과정'도 북일이 유일할 것이다."

- 인성교육은 어떻게 진행하는지?

"원래 전인교육이 교육철학이다. '교과서 안보다 교과서 밖으로, 교실 안보다 교실 밖으로, 학교 안보다 학교 밖으로' 가 내 교육가치관이다. '1인1예1체' 시스템을 통해 학생마다 꼭 하나씩은 하게 했다. 서울에서도 대학 출강하시는 강사들이 와서 가르친다. 학생 두 명이 해금 배우겠다고 신청해서 강사를 초빙해 개설하기도 했다. 봉사활동도 학교가 천안시내 21개 기관과 연계해 수요일마다 5대의 버스로 실어주고 데려온다. 남을 배려하는 마음가짐과 자세를 키운다면 사회에서 리더로 충분히 성장할 것이다."

- 국제과 운영은 어떤 상태인가?

"많은 학교들이 글로벌리더 양성을 목표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북일은 완벽하다. 국적이 다양한 여러 교사가 상주한다. 일반적으론 대입공부에 매몰되어 있지만 북일은 교환프로그램이 연중 진행되고 있다. 북일학생들이 가서 수업참관하고, 외국학생들도 북일에 와서 수업참관한다. 수업을 영어로 진행하니까 가능한 얘기다. 미국 버지니아주 Dominion High School은 북일고 국제과를 벤치마킹할 정도다. 앞으로 성과가 크게 날 것이다."

재학생이 말하는 북일고



"선생님들의 열정적 수업 무엇보다 좋아요"

문태진(1학년. 일반계. 대전노은중 출신)

"고교야구팀이 유명한 학교로만 알고 있었는데, 부모님께서 시스템이 좋은 학교라고 북일고 진학을 제안해주셨어요. 시스템이 정말 좋아요. 우선 다양한 특별활동을 할 수 있어요. 경시대회, 수행평가, 내신평가, 모의고사를 대비하는 등 중학교 때에 비해 공부량이 많아졌지만, 1인1예1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스트레스와 피로를 풀 수 있죠. 저는 화요일과 금요일에 클라리넷 연주와 스쿼시, 미술활동을 하고 있어요. 국제멘토링, R&E 등 일반고에서 할 수 없는 다양하고 심도 깊은 전공관련 프로그램도 접하고요. 국제 의료기구 종사자를 향한 제 꿈도 이룰 수 있겠죠. 북일고는 교정이 넓고 아름다워요. 얼마 전엔 벚꽃과 목련이 흐드러지게 피었죠. 무엇보다 선생님들께서 열정적으로 수업해주셔서 정말 좋아요. 기숙사생활을 하다 보니 아침6시에 일어나 새벽1시까지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지만, 좋은 친구들과 뛰어나신 선생님들과 함께 즐겁게 생활하고 있어요."

"능동적 생활은 기본, 시간관리가 관건이죠"

서지원(3학년. 국제과. 천안쌍용중 출신)



"외고진학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더 큰 세상에서 공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 북일고 국제과에 지원했어요. 인권과 관련한 일을 큰 무대에서 하고 싶은데 능동적으로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좋아요. 정해진 틀 안에서는 공부하고 싶은 과목을 신청해 심도 깊게 공부할 수 있죠. 다양한 동아리 활동도 매력적이에요. 저는 아카펠라동아리 클럽장을 맡고 있어요. 다들 노래를 빼어나게 잘하는 것은 아니라 불협화음이 날 때가 많지만 연습을 통해 발전할 때마다 팀워크도 더 돈독해지는 것 같아 뿌듯해요. 봉사동아리인 인터랙트에선 부회장을 맡고 있고, 컴퓨터그래픽디자인에 관심이 많아 애플리케이션개발 동아리에서도 활동하고 있어요. 능동적 생활이 기본이기 때문에 시간관리를 잘하는 친구라면 빨리 적응할 거예요. 기숙사에서 생활하다 보면 서로에 대한 예의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므로 남을 배려하는 자세를 갖춰야 하겠지요."